

이젠 롤드컵...한국, 4번째 우승 노린다

9월29일~10월29일 롤드컵

시카고·뉴욕 등 전미투어 방식 채택
韓 락스타이거즈·SK텔레콤T1 확정
북미·유럽·中·와일드카드 등 출전



이젠 '롤드컵'이다. 지난 20일 라이엇게임즈의 인기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LoL)'의 정규 리그 'LoL 챔피언스 코리아(LCK)' 서머 결승이 락스타이거즈의 우승으로 막을 내렸다. 한국과 다른 지역별 LoL 정규 리그도 속속 마무리됐다. 팬들의 관심은 이제 내달 말 개막하는 글로벌 e스포츠 대회 'LoL 월드 챔피언십(롤드컵)'에 집중되고 있다. 롤드컵은 각 지역 강팀들이 출전해 올해 최고의 팀을 가리는 대회다. 롤드컵 이후엔 전 세계 인기 선수들이 대거 참여하는 이벤트성 대회 '2016 LoL 올스타(올스타전)'도 열릴 예정이다.



인기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를 종목으로 한 각국의 정규리그가 속속 마무리되면서 팬들의 관심이 9·10월 미국에서 열리는 '롤드컵'에 집중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독일에서 열린 롤드컵 결승전 현장. 사진제공 | 라이엇게임즈

●올해 최강팀 가리자

롤드컵은 9월29일부터 10월29일까지 한 달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시카고, 뉴욕, 로스앤젤레스 등을 순회하는 전미 투어 방식으로 열린다. 한국과 북미, 유럽, 중국, 동남아 등 각 지역별 LoL 정규 리그 대표팀들이 출전한다. 총 16팀이 월드컵과 유사한 방식으로 조별 예선 및 본선 토너먼트에서 맞붙어 최고의 팀을 가린다.

각 지역별 진출팀이 어디인지 벌써부터 팬들의 관심이 뜨겁다. 롤드컵 진출권은 글로벌 대회 성적에 따라 각 지역별로 분배된다. 그동안 글로벌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기록했던 한국의 'LCK', 북미의 'NA LCS', 유럽의 'EU LCS', 중국의 'LPL'에는 각 3장의 진출권이 주어진다. 또 동남아의 'LMS' 및 기

타 전 세계 지역 리그의 선발팀들이 포함된 인터내셔널 와일드카드에는 각각 2장의 진출권이 주어진다. 인터내셔널 와일드카드엔 'LMS'를 제외한 기타 동남아 지역 리그인 'GPL', 일본의 'LJL' 및 오세아니아, 남미, 독립국가연합(CIS), 터키, 브라질 등이 포함돼 있다.

한국에선 LCK 서머 결승전 결과에 따라 락스타이거즈와 SK텔레콤T1이 롤드컵 진출을 확정했다. 세 번째 팀은 9월3일 마무리되는 한국대표선발전에서 결정된다. 타 지역도 롤드컵 진출팀이 속속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중국의 LPL을 대표해 EDG와 로얄 네버 기브 업이 롤드컵 진출권을 확보했으며, 동남아 LMS에선 플래시 울브즈가 서머 시즌 결승에서 우승하며 지난해에 이어 2연속 진출을 확정했다. 북미 LCS에서는 전통의 명문 TSM, 유럽 LCS에

선 2016 미드 시즌 인비테셔널(MSI)에 등장했던 G2 E스포츠가 명예 회복을 위해 나선다. 9월 첫째 주 각 지역별 대표 선발전이 마무리되면 롤드컵에서 활약할 16개팀이 모두 정해진다. 올해도 세계 최고 수준의 팀들이 경합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3번이나 롤드컵 우승컵을 들어 올렸던 한국 팀들이 또 다시 좋은 성적을 거둘지 기대를 모은다. 올해부터 적용된 조별 예선 추천 방식도 한국에 유리하다. 스프링 시즌 후 진행되는 글로벌 e스포츠 대회 MSI에서 좋은 성적을 받은 상위 4개팀이 속한 지역에서 서머 시즌 우승을 차지한 팀들은 롤드컵 예선 조 추천시 첫 번째 풀에 배정된다. 첫 번째 풀에 배정된 4개팀은 각각 다른 조로 편성돼 서로간의 대결을 피할 수 있다.

올해도 세계 최고 수준의 팀들이 경합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3번이나 롤드컵 우승컵을 들어 올렸던 한국 팀들이 또 다시 좋은 성적을 거둘지 기대를 모은다. 올해부터 적용된 조별 예선 추천 방식도 한국에 유리하다. 스프링 시즌 후 진행되는 글로벌 e스포츠 대회 MSI에서 좋은 성적을 받은 상위 4개팀이 속한 지역에서 서머 시즌 우승을 차지한 팀들은 롤드컵 예선 조 추천시 첫 번째 풀에 배정된다. 첫 번째 풀에 배정된 4개팀은 각각 다른 조로 편성돼 서로간의 대결을 피할 수 있다.

●인기 e스포츠 스타 대거 참가

12월에 개최 예정인 올스타전 역시 롤드컵과는 또 다른 매력으로 전 세계 e스포츠팬들을 열광시킬 것으로 보인다. 세계 최고 팀간의 대결로 주목 받는 롤드컵과 달리, 올스타전은 플레이어들의 투표를 통해 뽑힌 선수들이 독특한 모드의 게임 대결을 펼쳐 색다른 즐거움을 준다. 2016 올스타전은 12월 8일부터 11일까지 바르셀로나의 '팔라우 산 조르디' 경기장에서 펼쳐진다. 사전에 진행되는 플레이어들의 투표로 한국과 북미, 유럽, 중국, 동남아시아, 인터내셔널 와일드카드 지역 대표 선수가 다섯 명씩 선정된다. 각 지역 팀은

지난 5월 진행된 MSI와 롤드컵 성적에 따라 팀 파이어 또는 팀 아이스에 배정된다. 각 팀에 소속된 선수들은 지역간 대결과 1대1 토너먼트 및 올스타전에 서만 펼쳐지는 다양한 게임 모드를 통해 경기를 할 예정이다.

지난해 올스타전에선 특정 챔피언만 선택 가능한 '단일 챔피언 모드', 한 선수가 마우스를 잡은 선수가 키보드를 잡는 2인1조로 대결하는 '둘이 한마음 모드' 등으로 유쾌한 분위기를 만들었다.

권정현 라이엇 게임즈 e스포츠커뮤니케이션스 본부 총괄 상무는 "롤드컵과 올스타전을 통해 짜릿한 승부의 재미와 다양한 게임모드를 통한 즐거움을 모두 느껴볼 수 있을 것이다"며 "하반기 예정된 e스포츠 축제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영근 기자 dionys@donga.com



22일 서울 을지로 SK텔레콤 본사에서 김영주 SK텔레콤 엔터프라이즈 비즈 본부장(오른쪽)과 쏘카 김명훈 기술개발본부장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제공 | SK텔레콤

SK텔레콤 '쏘카'와 제휴 차량공유 서비스에 IoT 전용망 구현

SK텔레콤은 쏘카와 차량공유 서비스에 사물인터넷(IoT) 전용망과 모바일 내비게이션을 활용한 커넥티드카 구현에 나설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SK텔레콤은 커넥티드카의 안정적 구현을 위해 쏘카에 LTE-M을 도입할 예정. 기존 3G 기반의 커넥티드카와 달리 LTE 기술이 적용되면 실시간으로 차량제어 및 관제가 가능해진다. 양사는 올해 말까지 시범 테스트를 마치고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쏘카에 LTE-M을 적용할 계획이다.

정보와 오락 기능을 결합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도 도입한다. 양사는 우선 신규 차량을 대상으로 기존의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국내 1위 모바일 내비게이션 'T맵'으로 업그레이드할 계획이다. 차량 예약 및 연장은 물론 블루투스 스피커와 카오디오 기능을 탑재한 태블릿PC를 설치해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지난 5월부터는 쏘카 차량에 무선 와이파이 환경 구축에 나섰다. 양사는 실시간 차량 운행 정보 등 쏘카에서 수집한 빅데이터와 SK텔레콤의 T맵 데이터를 융합해 '커넥티드카'에 최적화된 신규 서비스를 추가로 개발할 계획이다.

김영근 기자

아웃도어

쿨비즈룩, 늦더위까지 시원하게

(Cool+Business 합성어)

■여름철 아웃도어 아이템

피케 셔츠·반팔 폴로 티셔츠 등 인기 블랙야크 '야크아이즈' 냉감기술 적용 아이더는 '트라비즈' 반팔 폴로 선배

휴가를 다녀와도 땀. 폭염이 식을 줄을 모른다. 에어컨을 틀어도 후텁지근한 사무실. "시원하게 입고 보자"는 직장인들의 '쿨비즈룩' 역시 유행기한이 늘어나고 있다.

쿨비즈룩은 'Cool(시원함)'과 'Business(비즈니스)'의 합성어로 여름철 일터에서 인기를 모으고 있는 패션이다. 넥타이를 매지 않는 것은 기본. 적당한 수준의 팔다리 노출도 특징이다. 체감온도를 낮춰줘 일의 효율을 높이고 무더위 속의 불쾌지수를 해소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블랙야크는 막바지 여름철 더위를 대비할 수 있도록 통기성을 강화하는 한편 냉감소재를 적용한 셔츠, 원피스 등의 쿨비즈룩 제품을 선보여 인기를 끌었다. 세련된 디자인으로 캐주얼한 분위기를 낼 수 있다. 시원하고 모던한 스타일링이 가능한 것도 장점이다.

블랙야크 상품기획부 박정훈 부장은 "폭염이 계속되면서 사무실 안에서 냉감기능이 극대화된 쿨비즈룩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실제로 폭염이 시작된 7월 말부터 8월 둘째 주까지 냉감 티셔츠의 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359%가 급증했다"고 말했다.

블랙야크의 '로비움S티셔츠'는 반팔 변형 에리 폴로 티셔츠로 변형 칼라 디테일을 적용해 디자인 차별화를 둔 제품이다. 블랙야크의 자체개발 냉감기술인 야크아이즈 기술을 적용했다. 피부와 접촉시 흡열반응으로 시원

함을 생성해 쾌적함을 느끼게 해준다. 슬림한 실루엣을 연출하고 싶다면 '아덴S티셔츠'가 있다. 여성 전용 폴로 원피스로 허리라인 다트작업을 통해 디자인 포인트를 줬다. 재생섬유의 친환경 기능성 소재로 땀을 흡수해 빠르게 말려주는 흡수·속건기능이 뛰어나다.

●과감한 반바지에 피케 셔츠 매치·캐주얼화로 쿨비즈룩 완성

프랑스 아웃도어 브랜드 아이더는 올해 비즈니스 캐주얼 콘셉트의 '트라비즈(Tra-biz)' 라인을 론칭했다. 쿨비즈룩은 넥타이를 매지 않기 때문에 상의를 신경 써서 골라야 한다. 라운드 티셔츠만 입는 것은 밋밋한 느낌을 주기 쉽다. 몸에 붙지 않고 통기성이 좋은 린넨 소재의 피케 셔츠라면 쿨비즈룩에 딱이다.

아이더의 '아리안 아이스 린넨 폴로 티'는 트라비즈 라인의 반팔 폴로 티셔츠다. 아이더만의 후가공 냉감기법인 아이스티(ICE-T) 가공을 천연소재 린넨에 적용했다. 한여름에도 시원하게 착용할 수 있다. 인체에 발생하는 땀이나 외부의 수분에 반응해 청량감을 더했으며 천연 통기성 소재인 린넨 소재가 결합돼 가볍고 시원하게 스타일링할 수 있다.

쿨비즈룩 아이템 중 가장 고민이 되는 것은 하의다. 최근에는 반바지를 허용하는 회사들도 많아졌다. 쿨비즈룩 반바지는 어떤 상의 아이템과 매치하느냐에 따라 느낌과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으니 출근 복장이 비교적 자유로운 사내 분위기라면 반바지에 과감히 도전해 보는 것도 좋겠다.

반바지는 중기장으로 바지통이 적당히 있는 디자인을 선택하는 것을 추천한다. 셔츠는 라운드 티셔츠 대신

넥칼라형이나 헨리넥 셔츠로 클래식하게 연출하면서 7부나 긴 소매의 디자인을 입으면 다리 노출의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다.

쿨비즈의 완성은 신발이다. 아이더 '아르테'는 천연 소가죽 소재로 세련되고 심플한 느낌을 주는 비즈니스 캐주얼화다. 투습성과 방수기능이 뛰어난 고어텍스 서라운드 기술을 적용해 오래 신어도 쾌적하다.

일반 신발 브랜드들도 장장 구두보다 통기성이 뛰어나고 끈이 없어 편하게 신을 수 있는 로퍼 슈즈를 앞 다퉈 선보였다. 핑거에스카이어에 따르면 여름철에 판매된 남화 중 로퍼의 비율은 2014년 17%, 2015년 23%, 2016년 33%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폭염이 계속된 올해의 경우 7월 한 달간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25% 증가했다.

에스카이어의 '데일리 클 로퍼'는 스타일과 실용성을 모두 만족시키는 여름철 데일리슈즈로 짧은 앞코 디자인을 통해 캐주얼한 느낌을 강조했다. 소가죽 소재로 세련된 느낌을 더해 세미 캐주얼룩, 포멀룩 등 다양한 스타일에 매치할 수 있다.

양형모 기자 ranbi@donga.com

- ▶블랙야크 '아덴 S티셔츠'
- ▼블랙야크 '로비움 S티셔츠'



넥타이를 매지 않는 시원한 쿨비즈룩이 직장인들 사이에서 인기다. 후가공 냉감기법인 아이스티 가공을 천연소재 린넨에 적용해 한여름에도 시원하게 입을 수 있는 '아리안 아이스 린넨 폴로티'를 입은 아이더 모델 한지연. 사진제공 | 아이더



파타고니아의 시그니처 아이템인 '레트로-X' 시리즈는 포근한 양털 모양의 소재가 바람을 잘 막아주고 옷이 젖을 경우에도 보온력을 유지해주는 것이 특징이다. 사진제공 | 파타고니아

친환경브랜드 파타고니아 '레트로-X 시리즈' 출시

친환경 글로벌 아웃도어 스포츠브랜드 파타고니아 코리아가 가을·겨울 시즌을 맞아 파타고니아의 시그니처 아이템인 레트로-X 시리즈를 새롭게 출시했다.

1988년 탄생한 레트로-X는 혹독한 추위를 견뎌야 했던 북대서양 어부들의 작업복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됐다. 포근한 양털 모양의 소재가 바람을 잘 막아주고 옷이 젖을 경우에도 보온력을 유지해준다. 클래식 레트로-X 재킷, 클래식 레트로-X 베스트 등 다양한 스타일과 컬러를 선보였다.

특히 레트로-X는 쓰다 버린 플라스틱 페트병에서 얻은 재활용 폴리에스테르로 제작됐다. 최고의 제품을 만들되 불필요한 환경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다는 브랜드의 친환경 철학이 반영된 제품이다. 재활용 폴리에스테르 플리스 원단을 결합으로 사용해 탁월한 보온성을 지녔으며, 지퍼 안쪽에는 바람을 막는 펌브레이니가 들어 있어 방풍 기능도 뛰어나다.

신제품 클래식 레트로-X 재킷(28만9000원)은 베이지, 네이비, 카키 등 남성용 7종, 여성용 4종으로 구성됐으며, 클래식 레트로-X 베스트(22만9000원)는 남성용 8종과 여성용 3종으로 나왔다. 아이를 위한 키즈용 레트로-X(19만9000원)가 함께 출시돼 패밀리룩도 연출 가능하다.

양형모 기자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